실종 여고생 찾기 단서 전혀 없어 수사 난항

오늘 7일째…마지막 골든타임
숨진 용의자 치밀하고 지능적
주변서 머리카락 한올 안 나와
오랫동안 준비 정황 속속 드러나
행적 파악 안돼 장기화 우려

강진 여고생 A(16·고교 1년)양 실종사건〈광주일보 6월19일자 6면〉이 아동(만 18세 미만) 실종 골든타임인 '7일'을 단 하루 남겨놓고 있다. 경찰은 골든타임을 넘어설 경우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여고생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양 실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친구 B(51)씨가 상당기간 치밀하게 행동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자칫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B씨가 A양 실종 다음날 집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실종된 A양을 찾기 위해 강진군 도암면 지석마을 4개 중대, 도암면 계라삼거리 5개 중대, 군동면 금사리에 1개 중대를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7일이 지나면 실종 아동을 발견한 확률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실종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자, B씨의 차량이 2시간 40분 동안 머문 도암면 지석·계라 마을 주변 야산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강진 실종 여고생 수색지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B씨 차량에서 A양의 머리카락 등이 나오지 않았고 그의 시신에서도 상처 등 저항 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을 주목, A양과 B씨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석리 야산에 내렸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약물 복용 등 A양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유력지로 지석리와 B씨의 자택(군동면) 중간에 있는 계라삼거리를 집중 수색중이다. B씨는 16일 방범용 CC-TV가 없는 옛 도로(해강로)를 타고 이동했으며 계라삼거리부터 청자골휴게소 구간(4㎞)을 8분에 걸쳐 통과했다. 경찰 시험 운행 결과는 4분으로, B씨가 어딘가에서 4분간 정차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하나의 유력지는 B씨가 집에 귀가했다가 밤중에 다녀온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군동면 금사리다. 금사저수지 등이 있는 금사리는 B씨가 16일 밤 9시부터 10분간 머물렀다.

■시간대별로 본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12일	A양, 아버지와 B(51)씨의 식당에서 식사
16일 오후 2시	강진군 성전면 A양 자택 인근 CC-TV에 B씨 에쿠스 차량 찍힘 A양 "지금 식당아저씨 만나서 해남가고 있다" 친구에 메시지 연락
16일 오후 2시15분	도암면 지석리 앞 도로 CC-TV에 B씨 차량 찍힘
16일 오후 3시20분	지석마을 야산에서 B씨 차량, 주민에 의해 목격
16일 오후 4시30분	지석마을에서 A양 휴대전화 전원 꺼짐
16일 오후 4시55분	지석리 앞 도로에 강진 방면으로 향하는 B씨 차량 다시 찍힘
16일 오후 5시35분	B씨 차량 군동면 자택 도착. B씨 차량 세차·옷가지(추정) 소각
16일 밤 9시	B씨 차량, 금사리 방면으로 운행. 10분 뒤 귀가
16일 밤 11시8분	A양 어머니, B씨 자택 방문. B씨 뒷문 통해 도주
17일 새벽 0시57분	경찰, A양 실종신고 접수
17일 새벽 1시15분	경찰, B씨 자택 수색
17일 오전 6시17분	B씨, 자택 인근 공사장서 숨진 채 발견

하지만, 경찰이 추정하는 모든 지역에서 A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색작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최근 6개월간 행적이 상식밖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B씨의 지난 6개월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A양과 단 한차례도 통화나 문자 등을 주고 받지 않는 등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철저히 숨겼다.

여기에 보양탕집을 운영하는 B씨가 예약손님이 많은 토요일에 A양을 만나면서 하루종일 휴대전화를 가게에 놔두고 외출했고 자신의 동선을 감춘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B씨의 차량이 16일 당일 A양 집 앞 600m 지점에 있는 CC-TV에만 찍혔을 뿐, A양과 직접 만난 장면 등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도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B씨는 A양 실종 당일 CC-TV가 없는 옛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등 동선을 최대한 숨겼다. B씨는 이날 차량의 이동 경로 등이 촬영되는 블랙박스까지 끄고 다녔다.

B씨의 행적으로 비춰볼 때 A양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지역 등 B씨의 당일 동선들이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준수한 인상인 B씨는 상당히 지능적이며, 치밀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놔두고 나가고 블랙박스를 끈 점 등을 보면 은밀하게 모종의 계획 등을 실천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수사를 할수록 상식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재 진압·인명 구조 훈련 광주 동부소방서는 21일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주택 침입 여성 살해 30대 영장 신청

해남경찰은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35분께 해남군 해남읍 1층 주택 안방에서 A(여·52)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금품을 훔치기 위해 범행 장소를 물색 중 대문이 열린 주택을 발견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주택에 침입 후 안방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잠에서 깨 눈이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 집을 자주 찾았던 A씨는 이날도 어머니 집에 머물다 변을 당했다.

김씨는 범행 사흘전인 지난 16일 경남 거창에서 해남의 한 상가 건물에 이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김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0일 오후 7시45분께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했다가 A씨에게 발각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상습 난동 전과 69범 50대 주폭 '영장'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워 식당주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1일 만취 상태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황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다른 손님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26일, 5월9일에 입건되는 등 상습적으로 대인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과 69범인 황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노래방 도우미 전력 협박 갈취 5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이모(50)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A(여·28)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노래방 도우미 전력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고 벌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A씨를 만나 노래방도우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급으로 약속한 3만원 가운데 2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사는 할머니까지 보살펴야 했던 A씨는 생계를 위해 최근까지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씨는 그만두려면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특수 카메라 이용 수천만원대 사기도박 벌인 일당 '덜미'

쌍나팔

○…형광등 기구에 구멍을 뚫고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목포지역 사기도박단 총책 김모(46)씨 등 일당 9명은 지난해 5월20일 새벽 0시께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노름을 벌여 A(42)씨로부터 1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대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판돈 6100만원을 챙겼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광물질로 숫자를 표시한 카드를 상대방에게 준 후 형광등 기구에 설치한 자외선 필터 카메라로 이를 읽어내 도박에 가담한 공범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썼는데,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전문]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융3억)
▶매가 9억4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② 월곡동 (1층.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 (투룸3개) (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융 3억5천만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잇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융1억2천)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

법률 경매
㈜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상가빌딩(추천)
1) 서구 쌍촌동 (3층 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광산구 소촌동 (원룸빌딩)
토 80평 건 144평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4천8백
3)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코너 위치)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2천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토지 기타 추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 6억6천
2) 동구 지산동 (토지) 176평
▶ 감정가 1억7백 → 최저가 1억7백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4)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137평)
▶ 감정가 13억→최저가 9억1천
5) 수완지구 (1층상가) 50평
▶ 감정가 9억3천→ 최저가 5억2천
6)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100평
▶감정가 6억7천→ 최저가2억4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산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 매매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① 수완지구 (5층중 2층상가)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3억1천
② 북구 용봉동 (12층 중 7층 상가)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
③ 동구 남동 (상가주택)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④ 남구 봉선동 (4층 중 1층 상가) 감정가 18억 → 최저가 12억6천
⑤ 남구 주월동(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A.P.T, 주택
① 상무 버들마을주공 아파트 (25평)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4천7백
② 서구 풍암동 중흥아파트(24평) 시세 1억6천2백 → 최저가 1억1천3백
③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40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7백
④ 북구 신용동 한양수자인 (25평) 감정 3억2천3백 → 최저 2억2천6백
⑤ 서구 치평동 대주아파트 (23평) 시세 1억 8천 → 감정가 1억

공장/기타
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2백
② 광산구 신창동 부영아파트(34평) 시세2억 1천→ 최저가 1억4천
③ 광산구 오선동 공장(토 560평 건 590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 9천
④ 광산구 월전동 공장토 2000평 건 2500평) 감정가 68억 → 최저가 47억
⑤ 서구 양동 (숙박시설토 136평 건 427평 감정가 12억8천 →최저가 12억8천

010-7384-7800 010-6670-9800